

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— 선한 사람이 하나님-사람이 됨

성경: 옴 1:1, 8, 2:3, 9, 27:5, 31:6, 42:5-6, 요 1:14, 롬 1:3-4, 8:29

I. 옴은 선한 사람으로서, 온전하고 올곧으며 순전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였다 — 옴 27:5, 31:6, 32:1.

- A. 온전한 것은 속사람과 관련이 있고, 올곧은 것은 겉사람과 관련이 있다 — 옴 1:1.
- B. 옴은 순전한 사람이었다. 순전함은 온전하고 올곧은 것의 총체이다 — 옴 2:3, 9, 27:5, 31:6.
 - 1. 옴에게 있어서 순전함이란 그의 존재의 총체적인 표현이었다.
 - 2. 옴은 성격적으로 온전하고 올곧았으며, 윤리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다.
- C. 옴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,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— 옴 1:1.
 - 1. 하나님은 사람이 다만 그분을 경외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.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— 창 1:26.
 - 2.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.
 - 3. 옴이 자신의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들은 전적으로 허무한 것이었다.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도,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지도 못하였다.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옴을 염려하셨다 — 옴 1:6-8, 2:1-3.
- D. 오직 하나님만 옴에게 한 가지 부족이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, 그것은 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옴이 그분을 표현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얻기를 원하셨다 — 옴 42:5-6.

II. 하나님의 의도는 옴이 하나님-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— 옴 22:24-25, 38:1-3.

- A. 하나님은 옴을 또 다른 영역, 곧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으로 이끄셨는데, 이것은 옴이 자신의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을 통해 도달한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— 옴 42:5-6.
- B. 하나님의 의도는 옴을 하나님의 사람, 곧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다 — 딤후 6:11, 딤후 3:17.
- C. 하나님께서 옴을 벗겨 내시고 소모시키신 것은 옴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옴을 재건축하실 수 있는 기초와 길을 얻으시어, 옴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아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-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— 엡 3:16-21.
- D.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.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-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— 요 1:12-13, 롬 8:16.
 - 1.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, 또한 그분을 대표하도록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— 창 1:26-28.
 - 2. 우리가 단지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,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없다.
 - 3. 선한 사람이 아니라, 바로 하나님-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한다 — 고후 3:18.
 - 4.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-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표이며,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 — 창 1:27-28.

III.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하나님-사람을 산출했다 — 눅 1:31-32상, 요 1:1, 14, 18, 51.

- A. 누가복음은 하나님-사람을 계시해 주는데, 이 하나님-사람은 신성한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,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하셨다 — 눅 1:35, 2:7-16, 34-35, 40, 49, 52.
- B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, 곧 하나님-사람이 되었다 — 눅 1:35, 요 1:14, 마 1:18, 20-23.
 - 1. 주 예수님은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-사람으로 태어나셨다. 따라서 하나님-사람이신 그분의 존재를 위해 그분은 두 본질, 곧 신성한 본질과 인간적인 본질을 갖고 계셨다 — 마 1:18.
 - 2. 성령께서 사람 처녀 안에 잉태되심으로써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-사람이 산출되었다. 이 하나님-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시다 — 눅 1:35.
 - 3. 온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-사람은 인간 본성과 함께 그 미덕들을 갖고 계셨는데, 이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.
- C. 하나님-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인간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셨다 — 요 5:18-19, 30, 6:57상.
 - 1.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, 비록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셨다 — 요 6:57상, 5:19, 30, 6:38, 8:28, 7:16-18.
 - a.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다. 그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부터 그분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— 요 14:10.
 - b. 주 예수님은 하나님-사람으로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셨다 — 요 6:57상.
 - c. 주 예수님은 인간 생명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분의 인간 생활을 살아 내셨다 — 요 1:4, 11:25, 14:6.
 - 2. 주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인간 생명을 거절하심으로써, 곧 언제나 그분 자신을 십자가 아래 두심으로써 사셨기 때문에, 그분의 인간 생활은 인성을 표현하지 않고 인간 미덕들이 된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신성을 표현하였다 — 마 16:21, 24.
 - 3. 이 땅에서의 모든 날 동안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, 인간 미덕들이 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 표현하셨다. 이것이 원형이신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의 생활이었다 — 눅 1:31-32상, 7:11-16, 10:25-37, 13:10-16, 롬 8:3, 29.

IV.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-사람에 대해서 말한다. 이 하나님-사람께서 부활을 통해 많은 하나님-사람들로 재생산되셨다 — 롬 1:3-4, 8:29, 히 2:10.

- A.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-사람들, 곧 그분의 재생산을 산출하기 위한 원형이시다 — 벰전 2:21.
- B.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그분 자신의 대량 재생산을 얻으심으로써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셨다. 이 새로운 종류가 곧 하나님-사람 종류이다 — 롬 8:3, 29, 히 2:10.
- C. 하나님-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재생산인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 — 요 12:24.
 - 1. 첫 번째 밀알 곧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은 원형이셨고, 이 한 알의 밀이 죽고 부활함으로 산출된 많은 밀알들 곧 많은 하나님-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의 재생산이다.
 - 2. 많은 하나님-사람들이 많은 밀알들은 하나님의 재생산이다. 그분의 재생산은 하나님처럼 생겼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— 요일 2:6, 3:2, 4:17하.

- D. 하나님-사람의 재생산의 첫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,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— 요 3:3, 6.
- E. 하나님-사람의 재생산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서,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로 변화되어야 한다.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은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높이고 강화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한다 — 고후 3:17-18, 롬 12:2.
- F.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-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(種)에 속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— 요 1:12-13.
 - 1. 하나님에게서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-사람들, 곧 신성한 사람들이다. 우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과 똑같다 — 요일 3:1, 5:1.
 - 2.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,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— 요 1:12-13, 롬 8:16, 벧후 1:4.
 - 3. 우리 자신을 하나님-사람들로 여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면, 매일의 체험에서 우리는 변혁될 것이다 — 요일 2:20, 3:1-2, 5:13, 20.
 - 4.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만이 아니다. 우리는 하나님-사람들, 하나님-사람 종류, 하나님의 재생산이다 — 요 12:24, 롬 8:16, 29, 히 2:10-11.

V. 그리스도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그분을 하나의 원형으로 조성해 주었는데,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재생산되시고 하나님-사람들인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시기 위한 것이다 — 요 14:19, 갈 2:20.

- A. 하나님-사람의 재생산인 우리는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— 빌 1:19-21상, 3:10.
- B.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.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했고, 신성한 속성들과 연합되었으며, 신성한 속성들로 적셔져 있었다 — 눅 1:26-35, 7:11-17, 10:25-37, 19:1-10.
- C.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의 확대와 증가와 재생산과 연장으로서는 우리는 그분께서 사셨던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살아야 한다 — 요일 2:6.
 - 1. 주님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위한 본을 세웠는데, 그것은 하나님을 인성 안에서 표현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는 것이다 — 갈 2:20.
 - 2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,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,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— 마 16:24, 빌 3:10, 1:19-21상.
 - 3. 우리는 반드시 자기 계발을 거절하고 타고난 사람을 건축하는 것을 유죄판결 해야 한다.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— 갈 5:22-23.
 - 4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하셨던 분께서 지금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,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신다. 우리는 이분 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거나 점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— 고후 3:17, 13:5, 엡 3:16-19.
- D. 빌립보서 1장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-사람이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하나님-사람을 사는 것이다 — 빌 1:19.
- E.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, 주님을 사랑하고,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기를 사모할 때, 우리는 그분으로 채워지고 점유되며,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미덕들을 살아 내게 된다 — 고전 2:9, 6:17, 빌 4:4-9.